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영향 미칠 듯

20일 제144차 IOC 총회서 결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바흐 현 위원장 이후 2025년 6월부터 2033년까지를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책임질 차기 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지난 18일부터 개최되어 오는 3월 20일(현지 시간)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리는 제144차 IOC 총회에서 새로운 IOC 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이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IOC 위원장 선거, 왜 중요하냐?

IOC 위원장은 세계 스포츠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자리로, 임기는 8년이며 한 차례 4년 중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동안 올림픽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의 임기는 2025년 6월 23일까지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그의 후임이 결정된다. 새로 선출된 위원장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IOC를 이끌게 되며,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북에서 한국을 대표해 2036년 올림픽 개최지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차기 IOC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유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물론, 한국 스포츠계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IOC 위원장 후보 7인, 각자의 비전은?

이번 선거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각 후보는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선거전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

먼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64, 스페인)는 IOC 부위원장이자 전 IOC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사니어의 아들로, 스포츠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약으로는 기존 올림픽 운영 모델 유지 및 개선, IOC의 재정 안정성 확보, 국제 스포츠계와 협력 강화 등이 있다.

서베스천 코(68, 영국)는 1980년과 1984년 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현재 세계육상연맹(WA)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약으로는 여성 스포츠 보호 및 지원 확대, 올림픽 상업 모델 개편, IOC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커스티 코번트리(41, 여, 짐바브웨)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IOC 선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짐바브웨 체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약으로는 여성 및 개발도상국 스포츠 지원 확대, IOC 내부 개혁 및 민주적 운영 강화, 올림픽 지속 가능성 증대 등이 있다.

파이살 알 후세인(60, 요르단)은 요르단 왕자로, IOC 위원 및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중동 및 이슬람권 스포츠 발전과 아시아권 국가들의 올림픽 개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비드 라파르티앙(51, 프랑스)은 국제사이클연맹(UCI) 회장이자 프랑스 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으로, 유럽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IOC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성별 균형 달성, 아프리카 최초 올림픽 개최 추진이 그의 공약이다.

와타나베 모리나리(65, 일본)는 국제체조연맹(FIG)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유일한 아시아권 출마 후보자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약으로는 아시아 스포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일본 및 동아시아권의 올림픽 유치 지원 등이 있다.

끝으로, 요한 엘리아쉬(63, 스웨덴/영국)은 국제스키연맹(FIS) 회장이자 스포츠 관련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는 올림픽의 상업화 및 자금 조달 개혁,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가능성이 큰 유력 후보는 누구?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서베스천 코, 커스티 코번트리 3명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마란치 주니어는 스페인을 대표해 출마했고, 현 IOC 부위원장으로 IOC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베스천 코는 영국을 대표해 출마했고, 올림픽 선수 출신으로 런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강점이다. 그러나 IOC 정년(70세)에 가까워 장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커스티 코번트리는 짐바브웨를 대표하여 출마했고, 여성 스포츠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조하며 개혁적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다. 여성 최초의 IOC 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국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 청사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현 위원장 토마스 바흐 임기 6월 23일 종료에 따라 치러져

현재 후보는 사마란치 주니어 등 총 7명... 저마다 강점 내세워

차기 위원장, 전북에 유치하려면 한국과 우호관계 맺어야

력의 열세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IOC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약점이다.

이외에도 나머지 4명의 후보자 역시 나름대로 지지기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신 있게 출마했다고 보이며, 1차전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합종연횡으로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당선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선거이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전북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선거는 전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하려면, 차기 IOC 위원장이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마란치 주니어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입김이 강해져 한국이 유치 경쟁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베스천 코나 커스티 코번트리가 당선될 경우 스포츠 개혁이나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정책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올림픽 유치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OC 위원장 선거, 어디서 볼 수 있나?

IOC 위원장 선거는 3월 20일 유럽 시간 오후 4시경(한국 시간 오후 11경)에 선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출 종료 시간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며 길게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총회와 선거는 IOC Medi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차기 IOC 위원장이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북도민과 대한민국 스포츠 팬을 비롯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